

합격기
(2013년 5급공채(행시)재경직 합격)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기



정 우 용

-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
- 2013년 5급공채(행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3년 재경직에 합격한 정우용입니다. 저도 틈틈이 합격수기를 읽으며 심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런 합격기를 쓰게 됐다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기간 동안 느꼈던 심정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가감 없이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의 합격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부법이나 마음가짐 등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이랬구나.' 정도로 이 글을 읽어주시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I. 준비과정 및 공부방법

1. 수험 생활 시작 과정

제가 행정고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대학교 2학년 때 행정학과에서 전공기초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수업자체가 재미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돼서 정부의 일을 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공부하겠다고 경제학 교과서나 PSAT 교재를 샀지만, 한 번도 펴보지 않고 묵혀둔 상태였습니다. 전역 후 이제 본격적으로 고시공부를 시작하

기 위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정책학 등의 고시 관련 과목을 수강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내용은 너무 어렵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행시 공부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져, 2011년도 2학기는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고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본격적인 수험생활

(1) 2011년 후반기

휴학신청을 하고 정말로 고시공부 외에는 할 것이 없어진 저는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의 기초를 인터넷 강의로 다지고, 2순환부터 신림동 수업을 쫓아갈 실력을 만들어, 10월말에 하는 경제학 2순환부터 신림동에 들어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김진욱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 김정일 선생님의 행정법 예비순환, 박경효 선생님의 행정학 1순환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저에게는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군 입대 전에 수강했던 미시원론, 거시원론 수업 등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행정법을 듣고 있는 것은 정말로 고역이었습니다.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책을 보고 있자니 잠이 쏟아지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강의씩 꾸역꾸역 듣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인터넷 창을 띄워놓고 시간을 보내는 등 시간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어느새 경제학 2순환이 시작되었고, 더는 뒤처지기 싫어서 무작정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건물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고시식당, 복사집을 혼자 사용하지 못할 만큼 초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곳에서 먼저 공부하고 있던 후배, 동기들과 같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림동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순환을 경제학부터 선택과목인 국제경제학까지 실감으로 들으면서 점차 고시생활의 감을 찾아갔습니다.

혼란이 있었고 시간낭비가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수험과정에서 가장 잘했던 일을 하나만 고르라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겁먹지 않고 신림동으로 들어갔던 일을 뽑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공부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2012년 초, 드디어 5과목을 한번씩 공부하고 나서 어느새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차 시험 준비는 기본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모강을 실감으로 수강하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하루 종일 문제만 풀었습니다. 아침에 시험을 보는 게 힘들었지만, 같이 출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현장에서 점수가 나온다는 점이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 나름 즐겁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2차는 손대지 않고 하루에 2세트 또는 2.5세트 정도씩

문제만 풀었습니다. 여유롭게 몸관리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1차 시험이 무난하게 끝난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며 일주일정도 정신없이 놀다보니 어느새 3순환이 시작했습니다. 처음 3순환을 수강한 기분은 소위 '멘붕'이었습니다. 1차 준비 이전에 했던 공부들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하루하루 답안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일 수업내용을 그 다음 수업 전까지 계속 복습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고, 결국 답안을 또다시 작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고,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앞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올해는 어렵겠다는 느낌에서, 올해는 정말 안 되겠다고 3순환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점차 멍하니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4순환까지 수강 했지만 100점 답안을 다 채울 수 있는 과목은 경제학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약점과목인 행정법의 경우, 시험 전날에 보는데도 절반 가까이 전혀 공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2차 시험은 다가왔고, 90점만 채운답안, 페이지의 절반을 화이트로 채운 답안 등, 보기 민망한 답지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아무 생각 없이 놀았습니다.

(3) 2012년도 하반기

2012년도 2학기에는 학교에 복학해

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기본적인 부분을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18학점을 모두 고시와 관련된 과목으로 채우고, 학교 고시반에 입실했습니다. 신림동 생활만큼 밀도 있는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제금융론, 국제무역론, 화폐금융론, 공공경제학 등 경제학에서 따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수업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남는 저녁시간에는 가장 어려웠던 행정법을 공부했습니다. 김기홍 선생님의 1순환을 수강하면서 암기를 통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공부시간은 8시간 정도로 여유 있게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작년 2순환, 3순환 문제 등을 복습하며 느낀 점은 그래도 이제 대충 틀을 잡았다는 느낌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정답이 기억나진 않더라도, 대충 어떤 주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4) 2013년도 상반기

1차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2차공부에서는 손을 떼야 했습니다. 1차 준비는 고시반에서 함께 시간을 잡고 문제를 풀 뒤, 서로 채점해서 매일 점수를 공지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1세트 정도씩 문제를 풀면서 감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정도를 1차에만 집중해서 또다시 2차를 가까

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1차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공부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결국 1차 시험은 다가왔고 컨디션 관리에 별다른 문제없이 시험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뒤에는 100점 작성 스터디를 구하고 매일 스터디에서 100점, 3순환에서 50점씩을 채워나갔습니다. 이 기간이 수험기간동안 가장 열심히 준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8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12시 즈음에 잠들었고, 밥은 고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집중이 길게 되는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40분에 한번씩 일어나서 기지개도 켜고, 가끔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며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날에는 15분정도 산책도 하고, 자취방에 가서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평일에는 꾸준하게 10시간 정도씩은 채워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된 경제학 3순환은 작년보다 훨씬 완성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 답안 구성을 깔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경제학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여전히 어려웠고 김기홍 선생님의 3순환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고득점 답안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기홍 선생님의 단권화 된 교재를 무한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정

확하게 학설이나 판례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논점은 대충 맞출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고득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정도면 평타는 칠 수 있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으로 넘어가면서 나름 단권화 자료도 하나씩 완성되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5과목 다, 오답일지언정 100점은 채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달쯤에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서 장염에 시달리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디저트도 먹으러 다니고, 만화책도 빌려보고, 밤에 가끔 치킨도 먹는 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일탈을 즐기며, 2차를 맞이했습니다.

2차 시험 5일간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했습니다. 막상 전날 봐야겠다며 정리했던 자료는 다 보지도 못하고 불안감에만 휩싸여 고통스러운 5일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정말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쯤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12시에서 1시 사이쯤 매일 잠들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재정학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채점하는 교수님이 기분 좋을 때 채점하면 된다고 애써 무시하며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5) 2013년도 하반기

2차 시험이 끝나고 저는 정신없이 놀았지만, 결국 떨어지지 않았나 하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2차 교재를 전부다 책방에 팔아버리고 토익, 자격증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차 발표가 나는 날에 저는 술이나 먹자며 친구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합격문자가 왔고 술자리는 축하파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가족에게 전화를 돌릴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합격발표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일 간 신나게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잡힌 면접스터디를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면접 스테디는 각자 pt를 작성하고 개인면접 질문을 준비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서로 질문 및 pt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3차 준비기간은 힘들거나 어렵기 보다는 불안한 마음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2차 합격이라는 기적이 신기루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도 많이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재경직 면접 스테디원들과 교류해가며 스테디를 진행하고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3차 면접은 돌이켜보면 행운이 컸습니다. 면접관들께서 친절했던 것은 물론이고, pt자료의 주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대외개발원조로 나오면서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중 당황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

도 긴장하지 않고 무난하게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을 나오며 손에 배었던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보며 엄청나게 긴장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종 발표 날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날이었습니다. 발표 한 시간 전부터 헛구역질을 하고 발을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결과를 볼 자신이 없어, 불도 끄고 문을 잠그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온 순간 온 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PSAT

PSAT을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푸는 것이 문제 적응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3세트 씩 풀자는 마음으로 PSAT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힘들어서 3세트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3~4개년 정도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답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만드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특정 유형을 지속적으로 틀리고, 이런 문제는 꼭 다시 봐야겠다는 문체가 있다면 몇 개 정도는 따로 모아 놓는 것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저는 오답노트는 아니지만, 법률 문제 특강 교재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법률문제를 대비했습니다.

1차는 결국 자신감과 컨디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지사제도 한 알 먹고, 커피도 평소에 먹던 종류로 미리 구입하고, 점심용 김밥도 매일 먹던 집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 제2차과목별 공부방법

(1) 경제학

경제학은 저는 김-황-김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수강했습니다. 두 선생님 중 선택 기준은 단권화를 본인이 어떤 교재로 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두 선생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모의고사 문제, 수업 중 강조한 내용들은 스터디원을 통해서나 입소문은 통해서 잘 듣고 습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와,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의 거시를 활용했습니다. 교과서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특히 거시는 표현이나 개념의 의미가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약정리된 것보다 완성된 문장의 설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절망이자, 지옥같은 과목이

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끝까지 행정법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논리를 이해한 것을 암기한 문장으로 써내려 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기홍 선생님은 암기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선생님이 목차를 짚고 간단하게 요약해 주셔서 행정법 암기에 대한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논점만 다 맞추면 행정법은 평균은 찍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판례를 아무리 봐도 복사해 낼 자신이 없는 분들은 논점 맞추기에 집중하고 내용 구성은 평이한 목차 및 짧은 암기 문구로 구성해서, 그냥 무난한 점수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에 자신없는 사람이 완성도 있는 답안을 위해서 행정법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느니, 다른 과목의 고득점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의 경우 저는 교과서는 유민봉 교수님 것을 사용했고, 강의는 박경효 교수님 것만을 수강했지만, 논문이나 기타자료를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전공수업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행정학은 알 수 없는 과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상상하기 어렵고, 채점기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의 공부가 기본으로 필요한 동시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도 무난하게 답

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도 아는 것은 깔끔하게, 남들은 모르는 건 화려하게, 본인도 모르는 건 당당하게' 쓰자고 생각하고, 우선 목차 맞춰서 100점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써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울대 행대 모의고사 같은 쓰기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문제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이준구 교수님 것을 사용했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로는 문제를 더 푸는 것에 치중하고, 교과서는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기본은 경제학이니만큼, 다양한 계산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효과나 소득효용함수 계산문제 등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았고, 가끔 책방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들을 읽어보는 것이 견문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규모, 부동산 시장 현황, 예산 규모 등을 따로 종이에 정리해두고 시험 직전에 참고했었습니다.

(5)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가장 어려웠지만, 나름 공부하는 맛은 있었던 과목 같습니다. 경제학을 약간 응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학과 함께 내용을 이해한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과서는 김인준 교수님의 국제경제론을 사용하였고, 강의는 김-황-김 식으로 번갈아가며 들었습니다.

국금론이나 국무원이나 둘다 모형을 수첩에 정리하고 식 표현 등을 암기했던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을 잘 고르기만 하면 연습한 대로 점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실제 시험에서 모형을 어려운 것을 골라서 식으로 표현을 못해 시간을 크게 낭비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미분이나 log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식을 변형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서 가시면 저처럼 당황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V. 마치며

이 글을 쓰며 행시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힘든 기간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뿌듯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매일매일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날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공부를 응원해줬던 동생, 동기들, 선배님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